

충북 각계각층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확산

충청권 대학협의회부터 경제·여성단체까지 전방위 확산

충북도 방사광가속기 유치 홍보모델 운영...서명운동 전개

충북 각계각층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청주시 오창 유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대학(전문대학) 협의회장들은 2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충북지역총장협의회장 채훈관 유원대 총장,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장 최병욱 한밭대 총장, 대전·세종·충청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 류정운

강동대 총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성장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지질학전 안정성, 이용자 편의성, 발전가능성 등에서 전국 최적이인 충북 오창에 구축해 충청권 동반성장의 핵심 사업이 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충북경제포럼도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사광가속기 유치 유치를 지지했다.

이들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입지는 4차 산업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고 국

개발전을 견인해 국가 경쟁력을 한층 드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구축하면 전국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 대다수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위해 반드시 충북 오창에 입지해야 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충북여성단체협의회도 방사광가속기 유치 유치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치성을 배제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요자가 원하는 최적지에 구축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충북 오창은 편리한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면서 "단단한 암반지질대로 지질학적으로 오랜 기간 안정화된 지반인 청주 오창은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 몇몇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과 관련해 평가지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이미 절차에 따라 세운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의해 4개 지

역에서 신청한 뒤 유치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입지선정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방사광가속기 유치 관련) 정치인들은 부당한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가에서 정한 평가지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 당국에 건의함으로써 공정한 입지선정을 훼손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충북도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모

델'을 꾸려 막판 유치전에 돌입했다.

10여 명의 홍보모델들은 이날 오전 KTX 오송역 일원에서 '방사광가속기 최적지, 충북'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카드와 플래카드를 내건 채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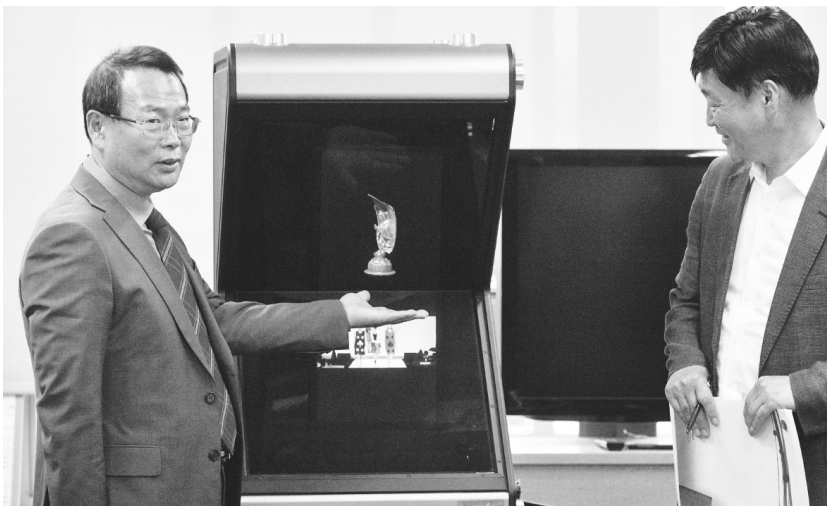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계획서를 접수해 5월6일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다음 날인 7일 설치지역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치의향서를 낸 지역은 충북 청주시(오창)와, 전남 나주시, 경북 포항시, 강원 춘천시 4 곳이다.

오유나 기자

전북도 홀로그램산업 '탄력'...106억5천만원 확보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국비 106억원 투입



전북도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4년간 국비 106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고효율 상용차용 홀로그램 HUD(Head Up Display) 재현 기술개발' 등 4개 과제 선정으

로 지역 주도 홀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북의 홀로그램 산업은 2019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전국 공모의 기술개발과제 확보에는 관련 기업 등 지역 역량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

도와 익산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택,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또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화 실증(홀로그램 상용차, 가상박물관)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해 최적의 컨소시엄(수도권 소재 5개 기업)을 구성했다.

특히 '고효율 상용차용 홀로그램 HUD 재현 기술개발' 과제는 기술 확보와 사업화 실증이 모두 도내에서 이뤄져 주력산업 체질개선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도 홀로그램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홀로그램 산업을 주도해 나아가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산림청, 힘내라임업인 스라이브스루 마켓 지난 27일 오후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일원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산나물 드라이브스루 마켓에서 시민들이 산나물을 구입하고 있다.

"초·중등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에도 진학할 수 있어야"

두세훈 전북도의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건의

두세훈 전북도의회 의원이 27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초·중학교 체육특기생들이 거주지 외에도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두 의원은 도교육청마다 거주지 외 관할지역 전·입학 가능여부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의원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해석을 놓고 전북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반면, 서울교

육청 등 10개 교육청은 '가능하다'로 해석했다.

두 의원은 "전북교육청처럼 거주지 관할지역 외 학교로 전·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중학교의 경우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학교체육진흥법 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 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난 3월 '삼례여중 축구부 해체 결정' 처럼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 없이 합숙소가 폐지돼 많은 학교체육부가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9조 제1항, 제3항과 관련해 법제

처는 교육장 관할지역 내로 전·입학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주지 외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불합리한 경우 거주지 외로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중학교 경우에도 원거리 학생선수 개념을 인정해 학교체육진흥법상 보장된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원리조트, 스노우월드 개장 기념 경품이벤트 전달식

하이원리조트는 지난 27일 하이원리조트에서 스키장 및 스노우월드 경품이벤트의 1등 경품인 르노 트위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키장 및 스노우월드 경품이벤트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2월16일까지 하이원스키장 및 스노우월드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등 당첨자인 이미화(42·여)씨는 경품으로 1430만원 상당의 르노 트위지(전기자동차)를 차지하는 행운을 얻었다.

이미화씨는 "매년 하이원리조트를 방문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서 좋았고 당첨이 되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이원리조트는 1등 경품인 전기자동차 외에도 골프 아이언세트, 블루투스 이어폰 등 총 202명에게 모바일쿠폰과 개별배송을 통해 증정했다.

최원석 하이원리조트 영업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하이원스키장 스노우월드 개장을 기념



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고객 분들이 만족할 만한 알찬 이벤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김해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 협약



경남 김해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제조혁신 실현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해시는 2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전자통신연

품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래신산업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이날 공동 구축한 'AI 제조혁신 김해연구실'은 앞으로 ETRI 박사급 연구인력이 상주하면서 김해시 산업 맞춤형 ICT 융합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AI 기반 제조혁신과 의료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김해연구실 개소를 계기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의생명·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역점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고도화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어린이날 기념 특별할인 이벤트

타임캡슐 기념품 증정...패키지 이용요금 50% 할인



충북 제천시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98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오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풍호 케이블카는 이벤트 기간 이용객에게 타임캡슐 기념품을 증정하고, 어린이 패키지 이용요금을 50% 할인한다. 어린이 패키지 이용권은 케이블

카와 환상미술관, 시네마360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는 올인 패키지, 환상패키지, 360패키지 3종류로 구성됐다.

올인패키지는 케이블카 왕복과 환상미술관, 시네마360 3가지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실속형 패키지다.

시네마360은 거대한 원형의 영상관 안에서 15분 동안 360도로 펼쳐지는 짜릿한 영상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3인 이상 가족이 방문하면 가정에서 소망하는 꿈을 담을 수 있는 타임캡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케이블카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